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3 주사 (7:25-7:44)

(2015년 4월 19일 - 2015년 4월 25일)

(제3권 13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4 월 1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 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 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닌가?(주일)

오늘의 본문 (요7:25~36)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Ελεγον οὖν τινες ἐκ τῶν Ἱεροσολυμιτῶν·)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찾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ὃν ζητοῦσιν ἀποκτεῖναι·)
- (26절)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말을 하고 있다 (καὶ ἶδε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는 자가 없도다 (καὶ οὐδὲν αὐτῷ λέγουσιν.)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 (μήποτε ἀληθῶς ἔγνωσαν οἱ ἄρχοντες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27절)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ἀλλὰ τοῦτον οἴ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ὁ δὲ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ρχηται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πόθεν ἐστί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말씀하사 외치셨습니다 (ἔκραξεν οὖν ἐν τῷ ἱερῷ διδάσκω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ων·)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μὲ οἴδατε καὶ οἴδατε πόθεν εἰμί·)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디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ήλυθα·)

-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십니다 (ἀλλ' ἔστιν ἀληθινὸς ὁ πέμψας με.)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ὄ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9절)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οἶδα αὐτόν.)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αρ' αὐτοῦ εἰμι καὶ κεί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0절) 그래서 그들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ιάσαι.)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ὴν χεῖρα.)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31절) 군중들 중 많은 수가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δὲ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의 행한 표적이 이 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 아닌가?
(ὁ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λθῃ μὴ πλείονα σημεῖα ποιήσει ὢν οὗτος ἐποίησεν.)
- (32절) 군중들이 그에 대하여 속닥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τοῦ ὄχλου γογγύζοντος περὶ αὐτοῦ ταῦτα.)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καὶ ἀπέστειλ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ὑπηρέτας ἵνα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 (3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나는 잠시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ἔτι χρόνον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καὶ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34절)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ε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ετέ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 (3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ἑαυτούς·)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어디로 떠나려는가?
(ποῦ οὗτος μέλλει πορεύεσθαι ὅτι ἡμεῖς οὐχ εὐρήσομεν αὐτόν.)
그가 헬라인 중의 디아스포라에게로 지금 바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가?
(μὴ εἰς τὴν διασπορὰν τῶν Ἑλλήνων μέλλει πορεύεσθαι καὶ διδάσκειν τοὺς Ἕλληνας.)
- (36절) 무슨 의미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가? (τίς ἐστι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ὃν εἶπεν·)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ε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ετέ [με],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 당시나 초대 교회 시기에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의 총 본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죽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5~27 절을 읽으십시오.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찾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는 자가 없도다.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요7:25~27).

그들은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스스로가 전에 안식일에 38년된 병자를 고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자 그가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찾아 다니던 바로 그사람임을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유월절(유대월 1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초막절(유대월 7월)이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두 가지 의문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해 외친 이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이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바로 그사람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경계심을 유발시킵니다. 즉, 예수님을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그분의 가르침도 모두 거짓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지요. 이는 초대 교회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변호인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 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번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²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³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⁴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⁵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열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⁶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⁷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⁸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⁹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행 24:1-9).

더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열병’(실제 의미는 ‘공공의 위협’)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며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죄악시하기 위한 상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 복음 7장 25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같은 의도로 예수님을 폄하하였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단순한 논리로 진리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반인들 사이에 기독교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단어로 불리고 있는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요즘과 달리 그 당시 예수님을 폄하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라고 한 말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국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들 즉, 유대

지도자들이 즉시 잡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 말에 가깝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리 놔두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폄하하여 그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야가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그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들어 그가 메시야가 아님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인간들은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유도질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받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선포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이런 저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유독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잘못에 대해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을 확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깡그리 악한 존재로 몰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지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겠지만 반대로 그런 일을 계기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로 부터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내셨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7:25~36)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Ελεγον οὖν τινες ἐκ τῶν Ἱεροσολυμιτῶν·)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찾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ὃν ζητοῦσιν ἀποκτεῖναι.)
- (26절)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다 (καὶ ἴδε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는 자가 없도다 (καὶ οὐδὲν αὐτῷ λέγουσιν.)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 (μήποτε ἀληθῶς ἔγνωσαν οἱ ἄρχοντες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27절)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ἀλλὰ τοῦτον οἴ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ὁ δὲ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ρχηται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πόθεν ἐστί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말씀하사 외치셨습니다 (ἔκραξεν οὖν ἐν τῷ ἱερῷ διδάσκω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ων·)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καὶ ἐγὼ οἶδατε καὶ οἶδατε πόθεν εἰμὶ·)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디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ήλυθα.)

-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십니다 (ἀλλ' ἔστιν ἀληθινὸς ὁ πέμψας με.)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ὄ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9절)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οἶδα αὐτόν.)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αρ' αὐτοῦ εἰμι καὶ κεί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0절) 그래서 그들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ιάσαι.)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ὴν χεῖρα.)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31절) 군중들 중 많은 수가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δὲ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의 행한 표적이 이 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 아닌가?
(ὁ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λθῃ μὴ πλείονα σημεῖα ποιήσει ὢν οὗτος ἐποίησεν.)
- (32절) 군중들이 그에 대하여 속닥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τοῦ ὄχλου γογγύζοντος περὶ αὐτοῦ ταῦτα.)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καὶ ἀπέστειλ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ὑπηρέτας ἵνα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 (3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나는 잠시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ἔτι χρόνον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καὶ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34절)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ε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ετέ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 (3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ἑαυτούς·)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어디로 떠나려는가?
(ποῦ οὗτος μέλει πορεύεσθαι ὅτι ἡμεῖς οὐχ εὐρήσομεν αὐτόν.)
그가 헬라인 중의 디아스포라에게로 지금 바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가?
(μὴ εἰς τὴν διασπορὰν τῶν Ἑλλήνων μέλει πορεύεσθαι καὶ διδάσκειν τοὺς Ἕλληνας.)
- (36절) 무슨 의미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가? (τίς ἐστι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ὃν εἶπεν·)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ε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ετέ [με],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28~2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주동사는 ‘크라조(κράζω)’인데 이 동사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소리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앞뒤 정황을 보건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위험이 뒤따를 줄 뻔히 아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곁에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그 시간에 성전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가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늘로부터 왔을 리만무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세상 잣대로는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실상이 땅의 인간들은 그누구도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안다구요? 그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겠군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십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단독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근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다시 도전적인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발언 때문에 이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담대하게, 큰 소리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며 따라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디로 가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신약성경을 통해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도 어쩌면 한낱 지식에 지나지 않을 뿐일 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로 그런 분으로 알고 따르고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지요.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만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시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직계 조상이었으며, 그들을 통해 율법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예언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포되었지요. 더군다나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행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처럼 모욕적이고 듣기 거북한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이 실상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봉사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²¹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²²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²³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1-23).

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매우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의 은사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이를 참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그 열심이 어찌면 자신의 성을 차곡차곡 쌓는 우상 숭배였을지 모르니까요. 당신은 올바른 길에 서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나요?

29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요17:3 참조).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7:25~36)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Ελεγον οὖν τινες ἐκ τῶν Ἱεροσολυμιτῶν·)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찾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ὃν ζητοῦσιν ἀποκτεῖναι;)
- (26절)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다 (καὶ ἴδε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는 자가 없도다 (καὶ οὐδὲν αὐτῷ λέγουσιν.)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 (μήποτε ἀληθῶς ἔγνωσαν οἱ ἄρχοντες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27절)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ἀλλὰ τοῦτον οἶ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ὁ δὲ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ρχηται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πόθεν ἐστί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말씀하사 외치셨습니다 (ἔκραξεν οὖν ἐν τῷ ἱερῷ διδάσκω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ων·)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καὶ ἐγὼ οἶδατε καὶ οἶδατε πόθεν εἰμί·)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디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ήλυθα.)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십니다 (ἀλλ’ ἐστὶν ἀληθινὸς ὁ πέμψας με.)

-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ὄ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9절)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οἶδα αὐτόν.)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αρ' αὐτοῦ εἰμι καὶ κεί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0절) 그래서 그들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ιάσαι.)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ὴν χεῖρα.)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31절) 군중들 중 많은 수가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δὲ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의 행한 표적이 이 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 아닌가?
(ὁ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λθῃ μὴ πλείονα σημεῖα ποιήσει ὢν οὗτος ἐποίησεν.)
- (32절) 군중들이 그에 대하여 숙덕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τοῦ ὄχλου γογγύζοντος περὶ αὐτοῦ ταῦτα.)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καὶ ἀπέστειλ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ὑπηρέτας ἵνα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 (3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나는 잠시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ἔτι χρόνον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καὶ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34절)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α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ὕρησατέ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ἐλθεῖν.)
- (3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ἑαυτούς·)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어디로 떠나려는가?
(ποῦ οὗτος μέλλει πορεύεσθαι ὅτι ἡμεῖς οὐχ εὕρησομεν αὐτόν·)
그가 헬라인 중의 디아스포라에게로 지금 바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가?
(μὴ εἰς τὴν διασπορὰν τῶν Ἑλλήνων μέλλει πορεύεσθαι καὶ διδάσκειν τοὺς Ἕλληνας·)
- (36절) 무슨 의미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가? (τίς ἐστὶ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ὃν εἶπεν·)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α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ὕρησατέ [με],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ἐλθεῖ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손도 예수님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잡으려 해도 잡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획한 대로 정해진 시기에 잡히셔야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잡히셔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인간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31절을 읽으십시오. 군중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가 행할 표적이 지금 이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사(초막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의 귀에 심히 거슬린 것이지요. 이들 두 그룹의 반응을 보면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거슬린 적은 없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진리로 믿고 따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나요?

32절을 읽으십시오. 32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이 수군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종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군중들이 숙덕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귀에 들린 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이 수군거린 말이 무엇이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군중들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를 잡기 위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하였을까요?

사실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때문입니다.(요7:12~13참조). 그런데 지금은 유대 지도자들이 곁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황급히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지요.

32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한통속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들은 성전세를 기반으로 매우 부유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기에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따라서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현세보다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염원했으며 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이런 두 집단 간의 극명한 견해 차이는 초대 교회 당

시사도 바울을 잡아와 재판할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잠시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 생김에 피소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²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³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⁴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⁵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⁶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⁷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⁸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⁹크게 환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¹⁰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행23:1-10).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로 연합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종파가 지금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파 간에 그 이유가 각기 다른데 먼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성전을 허물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 심히 분개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력화하는 등 율법을 어기는 데 대해 매우 분개했습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이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 기반이 흔들리자 전혀 다른 두 종파가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 가르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 집단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요즘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리와 믿음을 아예 저버리거나 슬그머니 그들과 동조하는 경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잡아 죽이려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꼭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가 어디로 떠나려는가?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7:25~36)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원문해석하기

- (25절)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Ελεγον οὖν τινες ἐκ τῶν Ἱεροσολυμιτῶν·)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찾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ὃν ζητοῦσιν ἀποκτεῖναι.)
- (26절)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다 (καὶ ἴδε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는 자가 없도다 (καὶ οὐδὲν αὐτῷ λέγουσιν.)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 (μήποτε ἀληθῶς ἔγνωσαν οἱ ἄρχοντες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27절)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ἀλλὰ τοῦτον οἴ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ὁ δὲ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ρχηται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πόθεν ἐστί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말씀하사 외치셨습니다 (ἔκραξεν οὖν ἐν τῷ ἱερῷ διδάσκω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ων·)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καὶ ἐμεῖ οἴδατε καὶ οἴδατε πόθεν εἰμί·)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ήλυθα.)

-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십니다 (ἀλλ' ἔστιν ἀληθινὸς ὁ πέμψας με.)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ὄ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9절)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οἶδα αὐτόν.)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αρ' αὐτοῦ εἰμι καὶ κεί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0절) 그래서 그들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ιάσαι.)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ὴν χεῖρα.)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31절) 군중들 중 많은 수가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δὲ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의 행한 표적이 이 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 아닌가?
(ὁ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λθῃ μὴ πλείονα σημεῖα ποιήσει ὢν οὗτος ἐποίησεν.)
- (32절) 군중들이 그에 대하여 속닥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τοῦ ὄχλου γογγύζοντος περὶ αὐτοῦ ταῦτα.)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καὶ ἀπέστειλ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ὑπηρέτας ἵνα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 (3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나는 잠시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ἔτι χρόνον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καὶ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34절)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α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ατέ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 (3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ἑαυτούς·)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어디로 떠나려는가?
(ποῦ οὗτος μέλει πορεύεσθαι ὅτι ἡμεῖς οὐχ εὐρήσομεν αὐτόν.)
그가 헬라인 중의 디아스포라에게로 지금 바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가?
(μὴ εἰς τὴν διασπορὰν τῶν Ἑλλήνων μέλει πορεύεσθαι καὶ διδάσκειν τοὺς Ἕλληνας.)
- (36절) 무슨 의미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가? (τίς ἐστι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ὃν εἶπεν·)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α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ατέ [με],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잠시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만간 십자가를 져야 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은 헬라어로 ‘에티 크로논 미크론 (ἔτι χρόνον μικρὸν)’인데 이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는 지 약 반년이 지난 유월절에 예수님은 이들 당국자들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 즉,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³³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³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³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³⁶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요 13:33-36).

예수님은 오신 곳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수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때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수많은 지식이나 일시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그분이 살아간 삶을 자신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3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예언이자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바꾸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디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요 8:21).

35~36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조차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어디로 떠나려는가? 그가 헬라인 중의 디아스포라에게로 지금 바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가?”(34절)

이 질문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이고 그 다음은 가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떠나 헬라인 중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일 것이고 가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한다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말은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필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내었고 그 결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뿐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곳으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¹¹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¹²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롬11:11-12).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여 로마 제국 전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든 장본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생전 헬라인들에게 가신 적이 없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로 복음을 확산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입으로 직접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요7:37~44)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축제일의 마지막,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시사 다음과 같이 말하며 외치셨습니다
(*En δὲ τῇ ἑσχάτῃ ἡμέρᾳ τῇ μεγάλῃ τῆς ἑορτῆς εἰσήκ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κροξεν λέγων·*)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εἴαν τις διμῶ ἔρχε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그의 배로부터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εύ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 (39절)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가 곧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περὶ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ὃ ἔμελλον λαμβάνειν οἱ πιστεύσαντες εἰς αὐτόν·*)
성령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οὐπω γὰρ ἦν πνεῦμα,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δέπω ἔδοξάσθη.*)
- (40절) 그런데 군중들 중에 이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οὖν ἀκούσαντες τῶν λόγων τούτων ἔλεγον·*)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이다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 (41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οἱ δὲ ἔλεγον· μὴ γὰρ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ὁ χριστός ἔρχεται·*)
- (42절)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고 살던 마을 베들레헬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οὐχ ἡ γραφή εἶπεν ὅτι ἐκ τοῦ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καὶ ἀπὸ Βηθλέεμ τῆς κώμης ὅπου ἦν Δαυὶδ ἔρχεται ὁ χριστός·*)
- (43절) 그러므로 그[예수]로 인하여 군중들 안에 나뉘이 생겨났습니다
(*σχίσμα οὖν ἐγένετο ἐν τῷ ὄχλῳ δι’ αὐτόν·*)

(44절) 그들 중 몇몇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ἠθέλον ἐξ αὐτῶν πιάσαι αὐτόν.)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그들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ὄλλ'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ὰς χεῖ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7절을 읽으십시오.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이 구절에는 매우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신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40년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광야의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다시 듣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신명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이 주어진 날은 유월절로부터 오십일째 되는 날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로부터 약 40년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때 받은 율법을 한번 더 설명한 것이지요.

첫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내려온 날입니다. 오순절에 율법이 내려온 것이 엄밀히 말해서 백성들에게 축제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들은 이제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의 상황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6 제 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3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출19:16-25).

율법은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광야 생활 내내 사람들을 심판으로, 죽음으로 이끌었으며 이와 함께 그들은 늘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온전한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을 주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첫 오순절에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보내신 그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¹⁸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¹⁹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²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²¹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²²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²³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²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12:18-24).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비교해 보고 율법과 은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에 담긴 메세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ἐάν τις διψῆ)이라는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목마르거든’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나 와서 이 물을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 즉,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만 나오라는 말입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목마름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생수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11:5).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열거하신 것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소경이어야 하고, 걷기 위해서는 앓은뱅이어야 하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문둥 병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 즉,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여야 하며,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에 관한 이런 깨달음이 선행되어야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목마름으로부터 해갈된 경험이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²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³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사 55:1-3).

당신은 어떻습니까? 목이 말랐었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나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한 언약 즉,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요7:37~44)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축제일의 마지막,[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시사 다음과 같이 말하며 외치셨습니다
(*Ἐν δὲ τῇ ἑσχάτῃ ἡμέρᾳ τῇ μεγάλῃ τῆς ἑορτῆς εἰσήκ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κροξεν λέγων·*)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εἴαν τις διμῶ ἔρχε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그의 배로부터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εύ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 (39절)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가 곧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περὶ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ὃ ἔμελλον λαμβάνειν οἱ πιστεύσαντες εἰς αὐτόν·*)
성령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οὐπω γὰρ ἦν πνεῦμα,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δέπω ἔδοξάσθη.*)
- (40절) 그런데 군중들 중에 이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οὖν ἀκούσαντες τῶν λόγων τούτων ἔλεγον·*)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이다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 (41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οἱ δὲ ἔλεγον· μὴ γὰρ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ὁ χριστός ἔρχεται·*)
- (42절)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고 살던 마을 베들레헬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οὐχ ἡ γραφή εἶπεν ὅτι ἐκ τοῦ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καὶ ἀπὸ Βηθλέεμ τῆς κώμης ὅπου ἦν Δαυὶδ ἔρχεται ὁ χριστός·*)
- (43절) 그러므로 그[예수]로 인하여 군중들안에 나뉘이 생겨났습니다
(*σχίσμα οὖν ἐγένετο ἐν τῷ ὄχλῳ δι’ αὐτόν·*)

(44절) 그들 중 몇몇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ἠθέλον ἐξ αὐτῶν πιάσαι αὐτόν.)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그들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ὄλλ'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ὰς χεῖ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8~3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로부터 살아 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이 살아 있는 물의 강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예고한 이후에 말씀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나는 잠시 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과 승천하시는 당시 상황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³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⁶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⁷ 가라사대 때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⁹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1:3-9).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요한복음 7장 38~39절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주 자로 잰듯이 치밀한 계산 하에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때가 초막절 끝날이었고 이는 광야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끄는 삶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오시면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단지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용서 이상의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제사에 드러지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⁸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⁹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¹⁰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¹¹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¹²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7-12).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로부터 살아 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받을 은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메마른 광야 시대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그곳으로 돌아가 영원한 제물로 계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믿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마냥 좋아라 할 수만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새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겹값을 치를 수 없기에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빛인 셈입니다.

39절 하반절을 다시 한 번 읽으십시오. 성경은 “성령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²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⁴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묘사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 등의 표현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실제로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그것이 불의 혀처럼 나뉘어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는 비유적 표현이지 실제로 불이 임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강한 소리로 온 집을 가득 메우고 있다가 그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불의 혀가 직접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11절을 읽으십시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⁹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¹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¹¹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16:7-11).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은 믿는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냥 공중을 떠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자를 거처로 삼고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실 세 가지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어가 각각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저희’(they)입니다. 그리고 의와 관련된 사람들은 ‘너희’(you) 즉,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관련된 존재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죄와 심판은 제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부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가 곧 죄고 심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배에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나요? 무엇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흔히들 말하는 ‘성령 체험’이 곧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체험이 실제로 성령님에 의한 체험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가 누구인가? (토요일)

오늘의 본문(요7:37~44)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축제일의 마지막,[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외치셨습니다
(*Ἐν δὲ τῇ ἑσχάτῃ ἡμέρᾳ τῇ μεγάλῃ τῆς ἑορτῆς εἰσήκει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κροξεν λέγων·*)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시십시오
(*εἴαν τις διμῶ ἔρχεσθω πρὸς με καὶ πινέτω.*)
-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ὼς εἶπεν ἡ γραφή.)
그의 배로부터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ποταμοὶ ἐκ τῆς κοιλίας αὐτοῦ ρεύ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 (39절)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가 곧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περὶ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ὃ ἔμελλον λαμβάνειν οἱ πιστεύσαντες εἰς αὐτόν·*)
성령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οὐπω γὰρ ἦν πνεῦμα, ὅτι Ἰησοῦς οὐδέπω ἔδοξάσθη.*)
- (40절) 그런데 군중들 중에 이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οὖν ἀκούσαντες τῶν λόγων τούτων ἔλεγον·*)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이다 (οὗτός ἐστιν ἀληθῶς ὁ προφήτης·)
- (41절)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ἄλλοι ἔλεγον·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οἱ δὲ ἔλεγον· μὴ γὰρ ἐκ τῆς Γαλιλαίας ὁ χριστός ἔρχεται·*)
- (42절)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고 살던 마을 베들레헬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οὐχ ἡ γραφή εἶπεν ὅτι ἐκ τοῦ σπέρματος Δαυὶδ καὶ ἀπὸ Βηθλέεμ τῆς κώμης ὅπου ἦν Δαυὶδ ἔρχεται ὁ χριστός·*)
- (43절) 그러므로 그[예수]로 인하여 군중들 안에 나뉘이 생겨났습니다
(*σχίσμα οὖν ἐγένετο ἐν τῷ ὄχλῳ δι’ αὐτόν·*)

(44절) 그들 중 몇몇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ἠθέλον ἐξ αὐτῶν πιάσαι αὐτόν.)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그들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ὄλλ'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ὰς χεῖ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가의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메시아사상 즉,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40-44 절을 읽으십시오.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 각기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로부터는 그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의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살펴 볼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 또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근거로 이런 말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선지자’ 또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이 내용은 이미 1장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다룬 적이 있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그 선지자’와 ‘그 그리스도’에 토대하고 있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선지자’ (ὁ προφήτης)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 장 15 절~22 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 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15-2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가 오면 모세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조상들을 구원해 낸 것같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것일까요? 우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생각은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다윗 언약’이라 불리우는 그 약속에 관해 몇 군데 성경을 찾아 보겠습니다.

“²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낳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³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⁴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⁵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⁶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2-16).

“³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⁴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셀라)”(시 89:3-4)

“²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³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⁴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⁵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쏘 같이 사라지리니 ⁶“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⁷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급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2-7).

“³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사 55: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확실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²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 5:2).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로 나뉘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 이거나 아니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성경을 토대로 보면 출신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선지자’와 ‘그 그리스도’를 당시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분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같은 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D.A. Carson, p329).]

이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논쟁은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수 많은 이적들과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한 이유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⁴³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⁴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마16:13-14).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의 하나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나회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나요? 당신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나요? 혹시라도 그를 삶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으로 또는 신비한 기적이나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단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거나 병든 몸을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제각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마16:24).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